

# 檢, 압수수색에 통합진보당 '패닉'

# 범민련 '통일투사' 아직도 평양 체류

### 신·구 당권과 비판 한목소리, 브리핑은 따로

### 강기갑 "현 사태 악화" 오병윤 "당 파괴 기도"

통합진보당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신·구 당권과 각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찾지 못한 가운데 검찰이 21일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 서울 대방동 중앙 당사 압수수색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구 당권과는 한목소리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정면 비판하면서도 따로 브리핑에 나서는 등 자중지란의 극치를 보여줬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경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인력은 20명, 압수수색 대상은 당원 명부를 포함한 선거 관련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사무부총장은 이날 변호사와 함께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가로막았으며, 검찰은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통합진보당과 대치를 하면서 압수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오병윤 당원비상대책위원장 등 신구 당권과 지도부가 총출동했으며 논란이 된 김재연·이상규·박원석·김제남·정진후 당선자들도 나섰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상황에서 신 당권과의 혁신비대위와 구 당

권과의 당원비대위가 따로 브리핑에 나서는 등 '한 지붕 두 비대위 체제'의 극치를 보여줬다.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 정문에서 "검찰이 정당의 심장과 같은 당원 명부 등을 압수하는 것은 당 전체를 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에게 약속한 혁신 방안과 자체수습 방안이 검찰 압수수색 때문에 지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의 심장을 지킨다는 각오로 검찰의 압수수색은 허용할 수 없다"며 "자정능력이 힘들어가는 위기이지만 자체적으로 혁신해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우리의 수습을 돕는 게 아니고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당권과 측 오병윤 당원비대위원장은 "당원에게 드리는 긴급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내고 "진보정당의 심장과도 같은 당의 정보와 당원명부를 지켜 주십시오"라며 "당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며 우리 당원들의 정치활동과 양심의 자유를 사수하는 이 투쟁에서 저는 가까이 한 몸을 던지겠다"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공안검찰의 당 파괴



검찰이 21일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에서 비례대표 경선 부정·부실사태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려 하자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당원들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기도에 맞서 통합진보당을 사수하기 위한 전면전에 전 당원이 힘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당사 안에는 오 위원장을 포함한 김선동 의원, 이상규·김재연 당선자 등 구 당권과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통합진보 압수수색 동의 못해"

### 민주 "정당 내부문제 자체해결 최우선"

민주통합당은 21일 검찰의 통합진보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정당 내부의 문제는 자체 해결이 최우선인 만큼 검찰의 압수수색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헌법상 보장돼 있는 정당의 활동에 수사권을 갖고 합부로 개입하는 것은 정적권,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통합진보당 스스로 해결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중에 검찰이 선부르게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꼬이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이번 사태를 색깔론으로 전환해 재미를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새누리당에서 사상적 편향 의원들에 대한 제명안을 만들자고 하는데, 왼쪽으로 편향됐든 오른쪽으로 편향됐든 사상적 편향을 말하자면 새누리당에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내부의 문제이지만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흘러가는 분위기는 실망스럽다"며 "하루빨리 혁신과 쇄신의 모습을 보이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갈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지켜가고 있고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태를 정리하기 바란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석기·김재연·조운숙·황선 당선자 사퇴 거부

통합진보당 경선 비례대표 7번 조운숙, 15번 황선 후보가 21일 신당권과의 일괄 사퇴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선 비례대표 일괄사퇴 요구 거부자는 총 14명의 대상자 가운데 이미 사퇴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이석기(2번), 김재연(3번) 당선자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집계됐다.

신당권과가 중심이 된 혁신비대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선 비례대표 당선자 전원에게 사퇴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출당

(제명)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대방동 통합진보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단행으로 신·구당권과 모두 비상체제에 돌입하면서 제명 논의는 압수수색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이지만 엄연히 전략인 장애인 당사자를 부정으로 규정할 상황은 장애인 모두를 결코 설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사퇴의사를 밝힌 비례대표 1번 윤금순 후보의 사퇴가 확정되면 비례대표직을 승계받는다.

황 후보도 보도자료를 내고 "조준호 전 진상조사위원장이 비례후보 선거를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후보 사퇴가 진실의 무덤이 되고, 낙인찍고 소문나면 그것이 진실이 되는 이 상황에서 양심상 사퇴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이한구 "통합진보 비례 처리 민주와 협의"

### 中 구금 김영환 석방 촉구 결의안 추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통합진보당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의 사상편향 논란과 관련, "법률 검토가 됐는지 확인한 뒤, 당 내부에서 결정되면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거

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그간 중북 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이석기 당선자 등 19대 국회 입성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법률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무상보육 강화와 관련

된 정책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는 재원이 없어서 중단하니 보육교사들은 업무량 급증으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잘 해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혼란과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국에 구금돼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석방촉구 결의안을 민주당과의 협상의제로 삼을 계획도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두달전 밀방북 노수희 부의장 김정일 추모 이어 59일째 유람

최근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태로 촉발된 중북논쟁에 자칭 '조국통일운동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들과 함께 투쟁한 동지(同志)가 두달 동안 평양에 체류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지난 3월24일 밀방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장대행)이다.

노 부의장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 공동의장,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 박정희기념관반대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을 역임하며 '반미·반정부·자주통일'의 선봉에서 왔다.

노 부의장의 방북 목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 참가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3월25일 그의 방북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노 부의장은 평양에 도착한 당일 만수대창작사에 세워진 김정일·김정일 기념상을 찾아 참배했다.

다음날 그는 평양 김일성광장 중앙

에 설치된 김 위원장 영정에 범민련 남측본부의 화환을 보내고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김정일 사망 100일 중앙 추모대회에 참석했다.

노 부의장은 이후 3월28일까지 매일 김 주석의 생가와 금수산태양궁전, 북한이 김 위원장의 생가로 선정한 '백두산밀영' 등을 방문해 '조국통일투사'들이 '민족의 영수'로 예우하는 두 숲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최진수 의장, 해외본부 임민식 의장 등과 함께 범민련 북·남·해외본부 대표회의를 열고 "동족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한 이명박 보수세력을 단죄·규탄하자"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대표회의 공동보도문에 명시한 대로 그는 이제 속히 남으로 돌아와 '반통일보수세력 심판 운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다.

당분간 북한에는 그가 참석할만한 큰 행사도 없다.

그러나 노 부의장은 범민련 대표회의 이후 25일이 지나도록 남측의 동지들 곁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21일 현재까지 59일째 귀빈 대접을 받으며 북한의 이곳저곳을 다닌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 기간 노 부의장의 행적에 관해 15건이나 보도할 만큼 그는 북한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북한의 명소와 관광지도 두루 둘러봤다. 묘향산을 1박2일 일정으로 두 번이나 다녀왔고 주체사상탑, 개신문, 중앙역사박물관, 하나음악정보센터,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등 평양의 명소와 서해갑문 등을 찾았다. 방북 목적이 '김 위원장 조문'보다는 '유람·관광'에 더 가깝다고 착각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노 부의장이 지금까지 귀환하지 않는 것은 그의 귀환이 통합진보당 사태로 수세에 몰린 '조국통일운동' 세력을 더 난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국내 중북세력이 비난의 초점이 된 상황에서 자신의 귀환이 그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되리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SHOTBULL KOREA PORK

# 나는 **한돈**이다

**과격지원 간판교체비용**  
일체를 본사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광주지역내 10개 점포에 한정

## 대박나는 체인사업!!

### 부담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하세요

**서두르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 사장님의 현명한 선택만이 대박사업의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최소의 소자본으로 대박신화를 이룰수 있는 절호의 기회!!**

- 가맹비, 로열티 일체없음
- 인테리어 비용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최소금액 최소비용으로



**한돈은?** 품질좋은 국내산 돼지만 엄선하여 사용하고 100% 진짜갈비와 생삼겹만 취급하는 국내산전문점 입니다.

**딱! 리빙엔 OK!!** 타지않고 완벽하게 빠른시간안에 구워내는 기발한 아이디어 숯불구이 전문점

기름기 많은 오리와 삼겹살을 타지 않게 숯불에 구워내는 초 대박 숯불구이 아이템!! 기름은 좌와- 빠지고 육즙은 그대로 살아있어 부드러운 고소한 숯불구이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b>취급메뉴</b>	<b>점심특선</b>
돼지갈비숯불구이(국내산)250g	갈비정식 5,000원    냉면 4,000원
생삼겹살숯불구이(국내산)200g	정량판매(1인분) <b>7,000원</b>
갈매기살숯불구이(국내산)200g	포장판매 take out <b>5,500원</b>
생 오 리숯불구이(국내산)200g	

**읽어보십시오! 한돈으로 성공하실수 있습니다.**

- **우선** 우리 고장에서 사육되는 순수 국내산 정품 돼지만 매일 작업하여 취급하므로 타업체와 원자재 비교 불가합니다.
- **두번째** 본사에서 개발한 신개념 아이디어 숯불구이 기계는 원적외선이 사방에서 방출되어 2분만에 순간적으로 구워주기 때문에 건강식으로도 아주 좋고 인건비 절감효과등이 탁월합니다.
- **셋번째** 타업종으로 전환시에 발생하는 비용중 가장 큰 금액인 간판교체비용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므로 쉽게 업종전환을 하실 수 있으며 업주께서 필요에 의해 리모델링하실 경우 최소, 최저의 비용으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넷번째** 본사인 (주)사랑방유통은 우리 호남을 대표하는 외식 전문 업체로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체인점 관리와 물류를 책임집니다.

**체인점 문의 062-265-8900    본부장직통 010-7118-5514**